

韓國民間信仰의 生態

張 秉 吉

서울大學校文理大副教授

文化類型의 研究에는 어찌피 比較研究가 따르기 마련이다. 比較研究에서 固有性과 類似性이 發見되기 때문이다. 類似性에도 內容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發生의 原因에 같은 事情이 있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古代의 卵生說話와 같은 것이다. 卽

「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淥邊室中私之 而不返. …… 因而有孕.

生一卵. …… 有一兒破殼而出.」에서는 男女가 野合하여 卵을 낳았는데 대하여 中國 殷祖의 卵生은 처음부터 玄鳥가 되어있다. 「天命玄鳥 降而生商……」 이런 事情은 現行되고 있는 末世信仰에서도 볼 수 있다. 末世에서 神의 攝理를 보려는 그리스도敎의 信仰과는 달리 이 겨레에서는 末世의 災難에서 逃避의 꿈이 그려지고 있다. 「卵生」·「末世」信仰은 다른 地域의 그것들과는 同一하나 그 內容에서는 특히 그 思想을 受容함에 있어서는 選擇的이다. 比較된 韓國的信仰은 어떤가.

첫째로 「세 敎는 하나이다」

「과거의 불교는 出世間 生活을 본위로 하여 敎理나 制度가 조직되었으므로 世間生活하는 일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世間生活者는 출세간한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直弟子가 되기 어렵게 되었고」 「儒敎에서는 天理 자연의 道에 잘 순응하는 것을 率性하는 道라고하나 天道에 순응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天道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다」, 또 「기독교는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 집 품속에만 성숙되어 다른 일을 비방하고 원망한 큰 살림을 편벽되어 가르쳐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눈다」. 「이런 종교는 그 分野만의

教化를 주로한 것이기에 널리 世上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儒家에서의 太極이나 無極 佛家에서의 淸淨法身 仙家에서의 自然 或은 道는 구극에는 一圓으로 돌아간다. 이런 傾向은 甌山敎의 「天地公事」 吡哆敎의 「神化一心」 大宗教의 「天之三極과 人之三宗은 一也니라」 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의 「復歸攝理」나 儒敎系의 聖德道の 「三歸一」 上帝敎의 「三合」이나 正道敎의 標識인 綠色 ⊕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것은 摺合信仰이나 때에 따라서 神을 바꾸어 가는 Max Müller의 學說인 所謂 交替的 信仰(Katheno theism)은 아니고 敎義에 대한 根本的 無關心의 發露이며 中國의 儒敎精神에 依據한 傳統習性에 따르는 信仰이 아니다. 하나의 能力的 存在에 모든 神的 權威를 認定하여 統一을 期待하는 믿음이라 할 것이다. 分裂에서 오는 凶禍를 쓰라리게 느낀 民族의 마음의 發露이다. 現今의 이와 같은 傾向의 信仰을 「萬法歸一」 信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韓國의 여러 宗教信仰에서 「太陽은 어떻게 되었는가」 「人間은 어떻게 생겼는가」 등의 說明을 기대하여도 그 答은 얻어지지 않는다. 韓國人의 信仰中心은 마음의 reorientation에 엄격히 敏感하다.

「몸과 마음을 齋戒하고 法身佛을 向하여 各其 所願을 세운 後에 一切 思念을 除去하고 禪定에 들든지 또는 念佛과 頌經을 하든지 或은 呪文을 외어 一心으로 精誠을 올리면 결국 所願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 死魔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다. 이 信仰思想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은 精誠을 다하여 닦으면 어떤 힘을 生出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敎의 人間原罪觀과는 뚜렷이 다르며 儒敎의 修身과도 다르다. 이 修身은 「性」에 따라서 齊衆하고, 「治國平天下」하는 政治에 그 究極目的을 두고 있어서 宗教的 神秘力을 낼 수 있는 修業은 아니다.

聖德道の 「無星淸淨正方心」에 따르는 「樂中即 正覺即 極樂」이나 「修

養清心」에 의한 「不死藥 不老草」, 上帝敎의 「非道心至唯在正心」에 의한 「聖化天下」나 「後天開關」이나 天眞敎에서의 「精神淨化」에 따르는 「事人如天社會」등은 확실히 率性和 다르며 道敎에서의 「宇宙的 秩序」를 말하는 德의 아니다. 勿論 心이 전혀 능동적 작용을 잃은 상태의 佛敎的 三昧와도 다르다. 이와는 반대로 心을 간직하며 生을 保存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에는 吉福이 오고 長壽가 온다. 이것은 報應思想이다.

「……인간의 일에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보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이다.」 이 報應思想은 佛敎의 因緣因果의 緣起나 唐初에 盛行한 司馬承禎의 坐忘論이나 日本 弘法大師의 三敎指歸와는 다르다. 緣起相續에서 벗어난 空과 儒道佛의 一致 卽會三敎가 아니라 韓國民間信仰의 報應 信仰은 解脫과 같은 彼岸意識에 根據를 두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現世와 通路를 끊은 超越的 意識에서의 產物이 아니다. 또 이곳의 善이나 惡은 罪意識이나 迷悟의 觀念과는 다르다. 善惡은 깨끗함과 더러움에 통한다. 이런 觀念을 깊이 파고들면 善惡은 결국 吉凶이고 吉凶은 生成의 生命力과 이것을 방해하는 힘에 歸着된다. 儒家의 善惡은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고 心의 動靜 여하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우리 民族은 思辨的 思索的 冥想的인 精神態度를 갖지 않는 상 싶다. 하늘 세계나 幽冥界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佛敎的인 一元的 機械나 그리스도敎的인 絕對神이나 儒敎의 天과 같은 哲學的 原理를 產出하지 못하고 惡=煞(살)과 같은 現實主義的이 되었다. 이 現實主義的 信仰은 現實의 危機意識과 부딪칠 때에 地上天國의 信仰으로 옮겨 간다.

셋째로 「逆數가 지나면 順數가 온다」는 信仰이 現今의 民間信仰에서 支配的이다. 世稱 이 것을 末世(法)信仰이라고 한다. 이 信仰에 眞人出

現信仰이 덧붙여져 있다. 卽 圓佛敎는

「세상에 末世가 되고 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만한 법을 가진 救世聖者가 출현하여 능히 天地氣運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 잡고 그 人心을 골라 놓나니라」고 믿고 있다. 救世聖者는 眞人이니 眞人은 그리스도 敎의 Saint가 아니요 印度의 Mahatma나 Arabia의 Abdâ도 아니며 中國類의 天命에 순응하는 天子나 聖人·仙人도 아니다. 勿論 오늘날의 Elite도 아니다. 眞人은 「만법을 뜯어 고쳐서 새 법을 만들어 내는 地上에서 솟는 能力者이다」

위의 모든 信仰은 民間信仰을 中心으로 集團化한 宗教團體의 信仰이다. 이런 단체에 속한 一般信者는 단지 儀禮的인 信仰을 가질 뿐 敎理的인 것이 아니다. 그 종교단체에서 집행되는 儀禮에 參加할 뿐 理論에는 어둡고 所謂 原始宗教信仰을 갖고 있다. 이 信仰은 다른 民族에 共通되는 animism이나 animatism이고 magic的이다.

宗教集團은 西歐式의 church는 아니다. 또 信者相互間의 集團生活은 緊密하지 않고 緩慢하며 宗教信仰生活은 日常生活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보통 西歌人의 宗教生活은 어느 정도 日常生活과 분리되어 있다.

위에서 본 韓國的 宗教는 勿論 中國·印度 西洋과 相互 交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時代에 따라 變遷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韓國宗教는 西洋式의 觀照的도 아니며 印度의 冥想的인 것도 아니며 中國의 「鑑」과 같은 思想的인 것도 아니고 實利的 報應에 中心을 갖는다.